

2018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해설 경영경제계열

121 경영경제계열 - 문제

126 경영경제계열 - 문제해설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
(인문계열)
2018

100년을
만들었습니다

2018학년도 모의논술 문제해설

경영경제계열 -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대왕마마 병석에 침불안석 누워 천약이 만약이 뭐하리오,
옛 대신 불러들여 악류수를 구해라 하시니
옛 대신 하는 말이 "저승의 악을 어찌 구해 오리오."
첫째 공주 불러들여, "부모 소양 가라느냐?"
"산천궁녀 못 가는데 어찌 가오리."
둘째 공주 불러들여, "부모 소양 가라느냐?"
"첫째 형님 못 가는데 어찌 가오리오."
셋째 공주 불러들여, "부모 소양 가라느냐?"
"둘째 형님 못 가는데 어찌 가오."
넷째 공주 불러들여, "부모 소양 가라느냐?"
"셋째 형님 못 가는데 어찌 가오."
다섯째 공주 불러들여, "부모 소양 가라느냐?"
"넷째 형님 못 가는데 어찌 가오."
여섯 번째 공주 불러들여, "부모 소양 가라느냐?"
"다섯째 공주님 못 가는데 어찌 가오리까."
칠공주 불러들여서, "부모 소양 가라느냐?"
"국가에 신세는 안 졌지만은 어마마마 배 안에 열 달 들어 있던 공으로 소녀 가오리다."

(중략)

악류수를 입에 넣으시니 대왕마마와 어마마마가 일시에 일어나 앉으시며
"잠결이나 꿈결이나 왜 이리 소란하냐, 무슨 일로 왔느냐?"
만조백관 시녀상궁 아뢰옵는 말씀이야
"국왕의 칠공주가 무장승의 악수 삼천 리 구해 와서 동락태평하였나이다."

“농사꾼은 빚을 지마 안 된다 카이. 기계화 영농 카더이마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밋이나 되나.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이앙기, 거다 탈곡기, 건조기에…… 다 빚으로 산기라. 농사지 봐야 그 빚 갚느라고 정신없다.”

라

오후에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찾아와 진상을 알려 주었다. 김영수는 아주 심각한 말마들이 증세를 갖고 있고, 그 증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읽거나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까 갑자기 말문이 막혀 책을 읽을 수도, 그렇다고 말을 다듬어서 못 읽겠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처지였을 것이고, 그 사정을 잘 아는 서훈이가 당황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대신 읽었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정말이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중략)

‘미안해’라는 말은 여간 어렵지 않다. 분명히 내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안해’라는 말을 하려면 목소리가 기어올라거나 가능하면 슬쩍 얼버무리 버린다. 마음속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다. 너무나 미안하다고 생각할 때도 그렇다. 게다가 가끔씩은 그런 말을 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적도 있다.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오해는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거만하게 보이거나 못된 사람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나의 성격적 결함을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미안해’라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쩔거나 그 말이 목에 딱 걸려 안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기까지 한다. 왜 ‘미안해요’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그것은 나의 삶의 방식과 연결된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도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체득한 내 삶의 법칙은 슬프게도 ‘삶은 투쟁이고, 투쟁은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승부 근성이 투철한 내게 ‘미안해’라는 말은 결국 내가 졌다는 뜻이고,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경쟁 심리가 그 말을 거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혹은 자존심 탓일 수도 있다. ‘미안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나의 결함과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아니, 좀 더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가 보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어찌면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면, 내가 남보다 못났다는 데 대한 열등의식이거나 자격지심일 수도 있다. 만일 내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고, 그 사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는가.

(중략)

내일은 수업 끝나고 정식으로 사과해야지.

“에, 영수야. 지난번엔 미안했어. 수업 중에 읽는 것 시키지 말라고 말해주지 그랬니. 모르고 그런 거니 용서해 줄 거지?”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미안합니다’를 좀 더 자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맹자에 의하면 부동심이란 내면화된 용기, 즉 외물의 존재와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주로 삼는 바를 지키고, 이를 지키는 수양이 전제될 때 획득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맹자는 인간의 실천적 행동력으로서의 용기를, 혈기의 단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혈기자용'과 진실과 정의의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의리지용'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맹자는 혈기자용의 구체적 사례로 북궁유와 맹시사의 용기를 들었으며, 의리지용의 구체적 사례로 증자의 용기를 들었다.

북궁유라는 용사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을 위주로 하여 용기를 이루는 요체로 삼았으며, 맹시사는 역전의 용사로서 승패에 상관없이 오직 내면의 두려움이 없는 것을 위주로 하여 용기를 이루는 요체로 삼았다. 이들과 달리 증자는 스스로 돌이켜 정직하다면 비록 천만 명이라도 나아가 대적할 수 있는 도덕적 의리를 기반으로 하여 용기를 실천했다. 맹자는 평가하기를, 외향적인 북궁유의 용기에 비해 내향적인 맹시사의 용기가 진정한 용기에 가깝지만, 이들의 용기는 모두 혈기자용에 그치므로 의리지용을 지향하는 증자의 대용(大勇)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맹자에게 진정한 용기란 스스로 반성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며,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용기이다.

위험한 지식이 담긴 책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워 버리라고
 이 정권이 명령하여, 곳곳에서
 황소들이 끄고대며 책이 실린 수레를
 화행장으로 끌고 왔을 때,
 가장 뛰어난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추방된 어떤 시인이 분서 목록을 들여다보다가
 자기 책들이 누락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는 화가 나서 나는 듯이 책상으로 달려가,
 집권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내 책을 불태워 다오!
 그는 신속한 필치로 써 내려갔다.
 내 책을 불태워 다오!
 그렇게 해 다오!
 내 책을 남겨 놓지 말아 다오!
 내 책들 속에서 언제나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나를 거짓말쟁이처럼 취급하던 말이냐!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내 책을 불태워 다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용기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이 나타난다. 각각의 상황에서 발휘되는 '용기와 이를 통해 구현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했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용기에 대한 맹자의 주장을 활용하여 제시문 (라)에 나타난 '나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바)의 '시인'이 보여 준 용기는 맹자가 말하는 용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2017년 1월 농민 A 씨는 새로운 농작물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인 기업을 창업하였다. A 씨는 2018년 12월 농작물 수확을 목표로 2017년 12월에 뿌릴 씨앗의 개수를 결정하고자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할 씨앗을 미리 주문해야 하기 때문에 2017년 12월에 뿌릴 씨앗의 개수를 2017년 1월 현재 시점에서 결정한다. 이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정한다.

- 농작물 씨앗의 가격은 100원임
- 씨앗의 개수와 수확될 농작물의 개수는 동일함
- 농작물 시장 가격은 500원과 1,000원 둘 중 하나임
- 2017년 6월 농작물 시장 가격이 500원일 경우 2017년 12월에 뿌릴 씨앗의 개수는 3,600개임
- 2017년 6월 농작물 시장 가격이 1,000원일 경우 2017년 12월에 뿌릴 씨앗의 개수는 7,000개임
- 2018년 12월 수확된 농작물 전부를 정부가 2018년 12월 당시 가격에 구매함

2017년 6월과 2018년 12월 각 시점의 농작물 가격과 그에 대한 확률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농작물 예상 가격과 확률

2017년 6월 농작물 가격	2018년 12월 농작물 가격	
	500원	1,000원
500원	0.2	0.1
1,000원	0.3	0.4

[문제 3] 주어진 조건에 근거하여, 2017년 6월 시점의 농작물 예상 가격이 500원일 경우와 1,000원일 경우 중에서 어느 경우가 2017년 1월 현재 농민 A 씨에게 더 유리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